

# Are You Ready for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2022. 2. 9 (수)

**meritz** Strategy Daily

## 전략 공감 2.0

### Strategy Idea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 이벤트 전략  
: 2월 중순 전략 진입 타이밍

### 오늘의 차트

중앙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 통제: 실효성이 있을까?

### 칼럼의 재해석

'소비자 수리권' 캠페인: 빅테크 기업에 변화의 압박을 가하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 Strategy Idea



▲ Passive/ETF

Analyst 이정연

02. 6454-4895

jungyeon.lee@meritz.co.kr

##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 이벤트 전략 : 2월 중순 전략 진입 타이밍

- ✓ 3, 9월 선물옵션만기일,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변경 진행
- ✓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교체 수혜 그룹은 대형주에서 중형주 이동 종목군. 과거 기관수급 유입으로 주가 차별화 이어지는 패턴 반복
- ✓ 대형주 -> 중형주 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일 T-20 시점 매수 후, 정기변경일 매도 전략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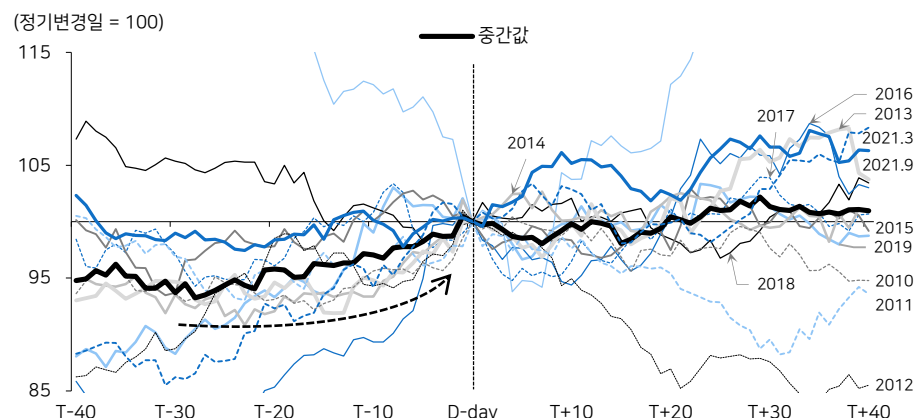
### 3월 11일 시총 규모별 지수 정기변경 진행, 중형주지수 편입 종목 집중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년 3, 9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영업일에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3월 정기변경의 경우,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일평균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는 대형주, 101~300위는 중형주, 그 외는 소형주로 구분한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에 주목

해당 지수변경 이벤트 전략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주 지수는 비슷한 대표지수(코스피200)가 있어 지수변경에 따른 수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중형주 지수는 중소형종목을 투자하는 펀드가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이다. 특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온 종목은 지수 내 비중이 커 수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심사기준일이 절반이 넘어가는 2월부터 수급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매매 전략과 예상 종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1 '대형주 -> 중형주' 변경 종목군 주가 추이\_정기변경일 전후(±2개월)



주: D-day 기준은 연도별 지수변경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 ‘용의 꼬리’에서 ‘뱀의 머리’로

대형주→중형주 이동 종목  
지수변경 전후 기관수급 유입

2010년 이후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이벤트 케이스 분석을 통해 기관 수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지수변경 전후(±2개월)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은 13번의 케이스 중 10번 기관 수급 유입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중형주 -> 대형주’ 이동 종목군은 13번 모두 기관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중형주 지수는 중소형주 펀드  
투자자가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  
따라서 중형주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수급 효과 발생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은 중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중소형주 펀드의 투자 유니버스로 새로 포함된다. 또한 중형주 지수에서의 비중이 상위에 위치함에 따라 추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관 수급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기초지수로 대형주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을 주로 추종한다. 따라서 ‘중형주 -> 대형주’ 이동 종목군은 중형주지수 수급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 수급 변화가 주가 차별화로  
이어지는 패턴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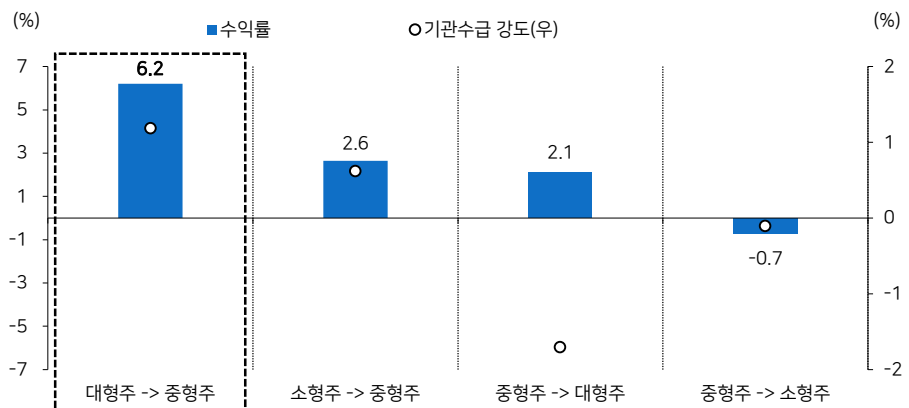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종목군은 13번의 케이스 중 8번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6.2%p, 중간값)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변경 이벤트 전후 높은 확률로 이와 같은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중형주 지수에 큰 비중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형주 -> 중형주’ 이동 종목군 수급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1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변경 개요

항목	내용
분류기준	. 코스피 구성종목 대상(심사대상기간 신규 상장종목 제외) . 3월 정기변경: 전년도 12월 ~ 당해년도 2월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
정기변경일	. 매년 3,9월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 결제월 최종거래일 다음 매매거래일
대형주	. 일평균 시가총액 1위 ~ 100위
중형주	. 일평균 시가총액 101위 ~ 300위
소형주	. 그 외 종목 코스피 종목

자료: 한국거래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지수변경 전후(±2개월) 지수 이동 종목군의 기관수급 강도,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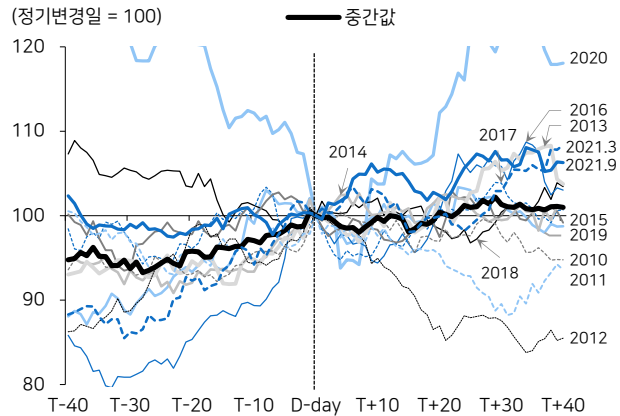


주1: 지수변경 2달전 ~ 지수변경 2달후 기간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 2010년 이후 중간값 기준

주2: 기관수급 강도는 '(누적 기관순매수/일평균 시가총액, 종목 중간값)'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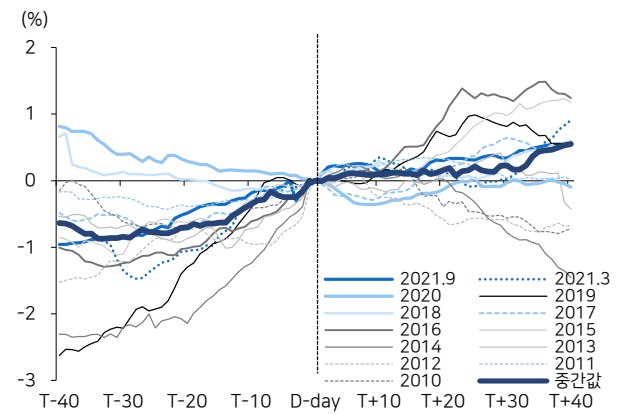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가 추이 비교: 대형주 -&gt;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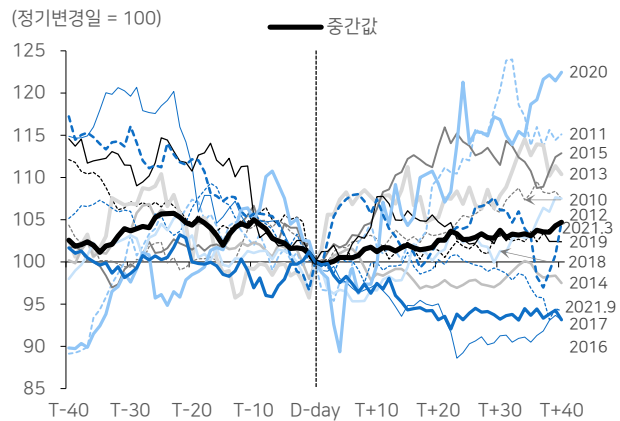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대형주 -&gt;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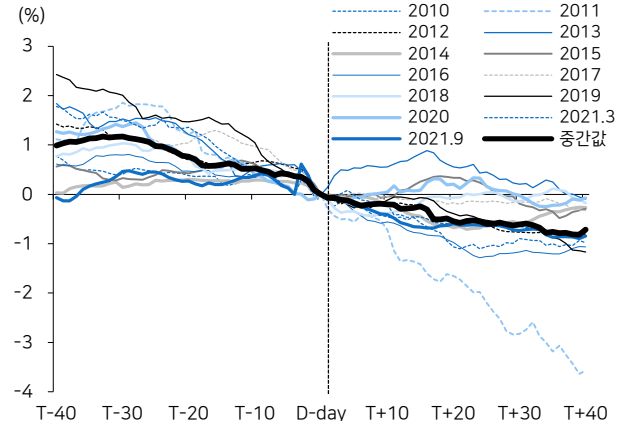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가 추이 비교: 중형주 -&gt; 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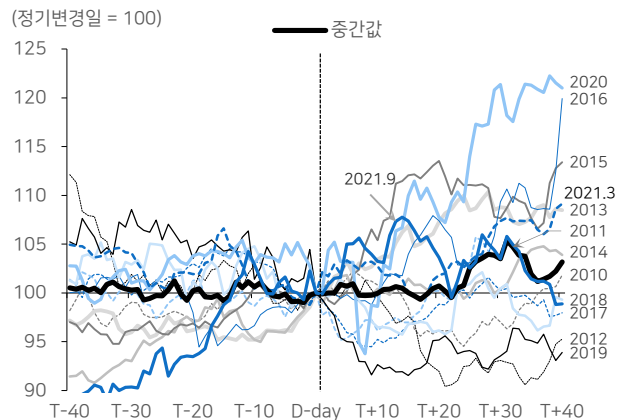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중형주 -&gt; 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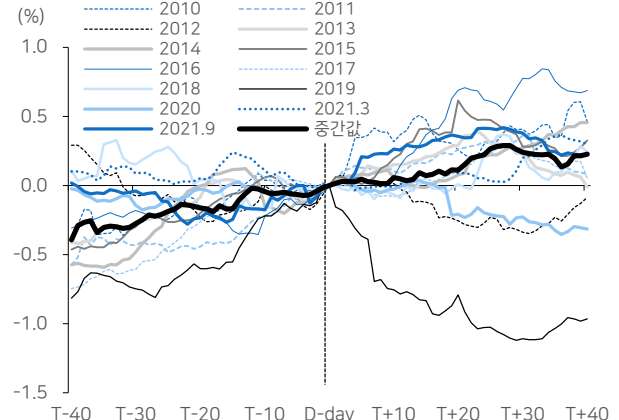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가 추이 비교: 소형주 -&gt;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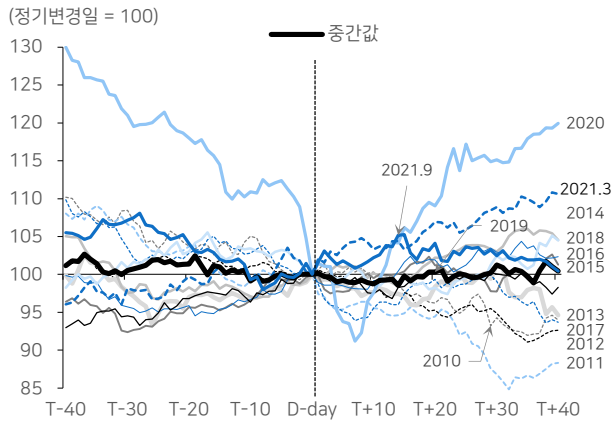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기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소형주 -&gt; 중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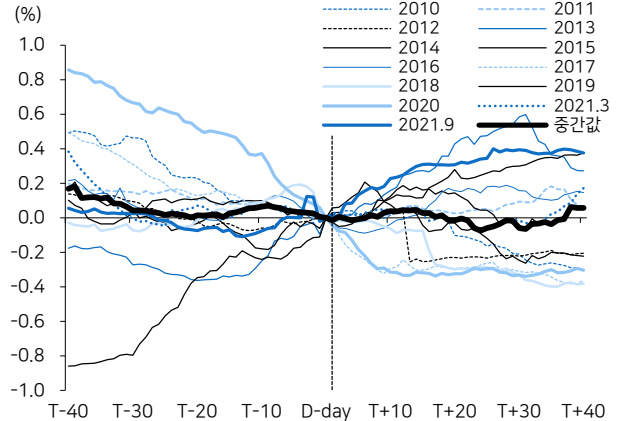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가 추이 비교: 중형주 -&gt; 소형주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 중형주 -&gt; 소형주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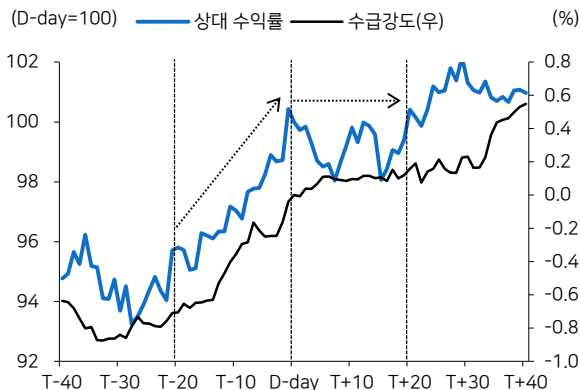
### 시총 규모별 정기변경 매매전략: 대형주 -> 중형주 종목 한달 전 매수

정기변경 한달전 중형주 이동종목  
매수 -> 정기변경일 매도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매매 진입타이밍을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 패턴상 적어도 20매매 거래일전 중형주 편입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정기변경 한달 전부터 정기변경일 까지 대형주 -> 중형주 종목군은 평균적으로 4.2%p 초과수익률을 기록했으며 0.7% 수급강도가 나타났다. 정기변경 한달 전은 시가총액 평가 기간이 절반이상 넘어가는 시점으로 중형주 예상 편입 종목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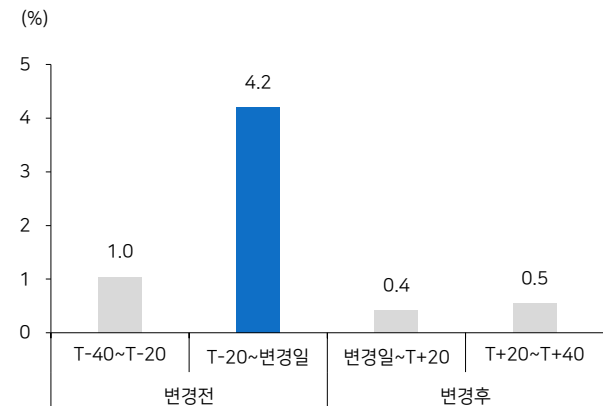
다만, 정기변경일 이후부터는 뚜렷한 기관 수급 유입이 없었으며 주가 또한 더 이상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즉, 정기변경일 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지수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진입한 투자자들이 정기변경 이후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일주일 간의 단기 조정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수 변경 한달전 매수 이후 정기변경일에 청산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 매매타이밍이다.

그림11 대형주 -&gt; 중형주 편입종목 주가 추이, 수급 강도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대형주 -&gt; 중형주 편입종목 기간별 성과\_상대수익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2022년 3월 대형주 -&gt; 중형주 이동 종목 11개 예상

대형주 -> 중형주 11개 종목 이동  
미분류 -> 중형주 내 시총 1조원  
이상 종목도 수급효과 기대

과거 평균적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수는 10개 내외이다. 이번 정기변경에서는 11개 종목이 이동할 예정이다. 호텔, 화장품 업종과 같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해 연말이후 수익률 부진을 기록했던 종목과 조선, 기계, 운송 등 산업재, 건강관리 업종 내 일부 종목들이 중형주로 내려올 전망이다. 또한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롯데렌탈 등 지난해 상장 이후 미분류 ->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들 역시 시총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중형주 신규편입에 따른 수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표2 중형주 편입종목 리스트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주가		수익률		일평균 거래대금 최근 20일 (십억원)	기관 순매수/시가총액	
				22/2/7 (십억원)	22/2/7 (원)			1개월 (%)	3개월 (%)		5일 누적 (%)	20일 누적 (%)
대형주 -> 중형주	A008770	호텔신라	호텔,레저서비스	3,002	76,500			-1.0	-4.6	26.7	-0.4	-1.3
	A010620	현대미포조선	조선	2,800	70,100			-14.9	-8.4	30.0	-0.4	0.1
	A028670	팬오션	운송	2,716	5,080			-9.9	-11.8	13.0	-0.1	0.2
	A000120	CJ대한통운	운송	2,760	121,000			-5.1	-16.3	4.6	-0.1	-0.3
	A112610	씨에스윈드	기계	2,066	49,000			-21.7	-19.5	13.6	-0.7	-1.7
	A042660	대우조선해양	조선	2,307	21,500			-14.7	-12.8	10.4	0.0	0.2
	A006280	녹십자	건강관리	2,150	184,000			-10.9	-27.8	10.1	0.1	-0.4
	A047040	대우건설	건설,건축관련	2,390	5,750			-6.8	-5.0	12.2	0.0	-0.2
	A298020	효성티앤씨	화장품,의류,완구	1,831	423,000			-29.4	-25.3	32.1	-0.2	-0.1
	A081660	힐라홀딩스	화장품,의류,완구	1,944	32,000			-6.2	-13.5	11.0	-0.1	-0.4
미분류 -> 중형주	A019170	신풍제약	건강관리	1,348	25,450			-13.9	-49.1	32.8	0.0	-0.6
	A271940	일진하이솔루스	자동차	1,522	41,900			-20.9	-36.5	7.6	0.0	0.2
	A381970	케이카	소매(유통)	1,402	29,150			0.7	25.9	10.6	0.0	0.5
	A089860	롯데렌탈	운송	1,247	34,050			-8.5	-13.7	3.4	-0.2	-0.9
소형주 -> 중형주	A395400	SK리츠	은행	952	6,140			-0.8	-0.3	1.2	0.1	0.5
	A007700	F&F홀딩스	화장품,의류,완구	1,072	27,400			-16.5	-31.6	1.6	0.0	-0.4
	A249420	일동제약	건강관리	1,129	47,450			59.8	217.4	183.4	0.1	-0.2
	A007340	디티알오토모티브	자동차	749	74,900			1.9	19.3	4.1	0.3	0.8
	A007810	코리아써킷	IT하드웨어	673	28,500			-9.4	68.1	22.6	0.2	1.8
	A008730	울촌화학	비철,목재등	627	25,300			-6.8	20.2	2.4	0.0	-0.9
	A003280	흥아해운	운송	521	2,165			-17.5	-32.2	0.9	0.0	0.0
	A020120	키다리스튜디오	소프트웨어	517	14,900			-13.4	-6.0	14.5	-0.1	-0.1
	A161000	애경케미칼	화학	478	9,820			-13.1	-22.7	1.5	0.0	-0.2
	A007690	국도화학	화학	502	55,700			-10.9	-8.8	3.7	-0.1	0.5
	A183190	아세아시멘트	건설,건축관련	540	138,500			-5.8	4.1	5.2	0.2	0.3

주: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7일 종가 기준 예상 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대형주, 소형주 편입종목 리스트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주가		수익률		일평균 거래대금 최근 20일 (십억원)	기관 순매수/시가총액	
				22/2/7 (십억원)	22/2/7 (원)			1개월 (%)	3개월 (%)		5일 누적 (%)	20일 누적 (%)
중형주 -> 대형주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증권	6,004	44,800			-9.1	26.7	27.0	0.0	0.2
	A000060	메리츠화재	보험	5,965	49,450			23.6	67.3	29.8	0.1	-0.4
	A000990	DB하이텍	반도체	3,197	72,000			-7.6	21.8	93.4	-0.5	0.7
	A014680	한솔케미칼	화학	2,528	223,000			-20.6	-34.1	21.5	0.2	-0.8
	A052690	한전기술	유틸리티	3,019	79,000			2.2	-12.1	43.2	0.0	-0.5
미분류 -> 대형주	A323410	카카오뱅크	은행	20,123	42,350			-23.0	-26.0	132.8	-0.4	-0.3
	A377300	카카오페이	소프트웨어	16,881	128,000			-16.6	-24.7	61.0	-0.2	-0.1
	A259960	크래프톤	소프트웨어	14,936	305,000			-22.7	-32.4	147.1	0.3	-1.2
	A329180	현대중공업	조선	9,010	101,500			-9.4	-10.6	29.9	0.0	0.2
	A402340	SK스퀘어	반도체	8,233	58,200			-4.6	0.0	112.7	-0.1	-0.5
	A137310	에스디바이오센서	건강관리	7,250	70,200			23.2	44.2	154.3	0.0	0.3
중형주 -> 소형주	A000400	롯데손해보험	보험	538	1,735			5.8	-6.0	0.6	0.0	0.0
	A123890	한국자산신탁	은행	471	3,800			-5.7	-12.9	0.7	-0.1	-0.2
	A093050	LF	화장품,의류,완구	490	16,750			-0.9	-12.3	0.8	0.0	-0.1
	A027410	BGF	소매(유통)	471	4,925			-6.2	-18.7	0.6	0.0	0.1
	A018250	애경산업	화장품,의류,완구	454	17,200			-9.2	-21.1	0.7	-0.1	-0.7
	A008490	서흥	건강관리	472	40,800			-4.6	-11.7	0.4	-0.1	-0.4
	A068400	SK렌터카	운송	480	10,150			-0.5	-12.9	0.7	0.1	-0.1
	A001060	JW중외제약	건강관리	451	20,350			-10.6	-8.2	1.8	-0.2	-1.7
	A281820	케이씨텍	반도체	426	20,400			-10.1	-9.9	1.7	-0.1	-1.7
	A002240	고려제강	철강	488	21,200			-1.2	-17.2	1.1	0.0	-0.3
	A271980	제일약품	건강관리	426	28,950			-10.5	-13.1	2.3	0.0	0.1
	A002320	한진	운송	440	29,450			-8.8	-11.3	1.4	0.0	0.0
	A000370	한화손해보험	보험	448	3,840			-2.9	-10.6	1.4	0.0	0.1
	A081000	일진다이아	비철,목재등	371	26,150			-11.5	-29.7	1.4	0.0	0.1
	A037560	LG헬로비전	미디어,교육	374	4,830			-9.6	-30.4	0.9	0.0	0.1
	A011930	신성이엔지	반도체	371	1,815			-11.7	-18.4	2.1	0.0	-0.1
	A084010	대한제강	철강	470	19,050			6.1	15.5	6.2	2.8	2.9
	A226320	잇츠한불	화장품,의류,완구	338	15,400			-14.9	-27.5	0.4	0.0	-0.2
	A001360	삼성제약	건강관리	287	4,275			-12.2	-18.1	1.7	0.0	0.0
미분류 -> 소형주	A139990	아주스틸	철강	435	16,450			-12.5	-8.9	2.1	-0.1	-0.1
	A377190	디앤디플랫폼리츠	은행	342	5,310			-1.1	-1.3	0.5	0.1	0.3
	A372910	한컴라이프케어	건강관리	195	7,030			-20.7	-9.6	1.2	0.0	0.0
	A400760	NH올원리츠	은행	216	5,110			-1.2	0.0	0.7	0.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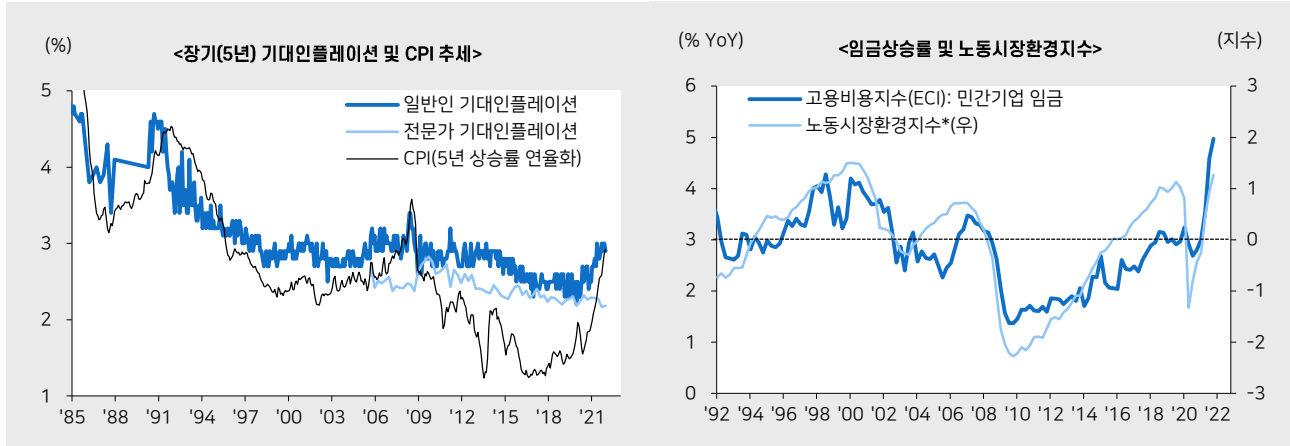
주: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7일 증가 기준 예상 종목

자료: E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오늘의 차트

이승훈 연구위원

## 중앙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 통제: 실효성이 있을까?



주: 노동시장환경지수\*는 0 이상일 경우 노동시장 활동성이 장기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US BL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인플레이션의 자기실현적 특성을 반박하는 논문이 발표됨

FRB 연구위원 Jeremy Rudd는 최근 논문 "Why Do We Think That Inflation Expectations Matter for Inflation?"에서 인플레이션의 자기실현적 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통제함으로써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지한다는 접근과는 사뭇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 핵심 논거: 기대인플레이션에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부재

Rudd의 핵심 논거는 기대인플레이션에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부재하며, 임금은 철저히 노동시장 수급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기존 이론에서는 노동자들이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라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Rudd는 만약 이론이 맞다면, 임금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된 가운데, 임금상승률이 노동수급 여건에 연동되어 왔음

실제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오랜 기간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00년대 이후 CPI 상승률이 1~4% 사이에서 등락하는 동안, 장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과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2%대에서 유지되었다. 반면, 민간기업 임금은 '92년 이후 평균 2.8%씩 상승한 가운데, 당시의 노동 수급 여건에 연동된 변동을 보였다. 이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 결국, 통화정책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

결국 Rudd의 주장은 통화정책이 미래의 기대를 관리하기보다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노동시장 여건이 상반되었던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났던 점, 그리고 임금상승 압력이 확인된 이후 정상화 속도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칼럼의 재해석

김선우 연구위원

## '소비자 수리권' 캠페인: 빅테크 기업에 변화의 압박을 가하다 (Financial Times)

2019년 전세계 전자제품 폐기량은 53.6백만톤에 달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21%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에 힘입어 '순환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순환 경제는 '제조-사용-폐기' 이후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경제 트렌드이다. 이러한 트렌드의 연장선에서 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리권(Right to repair) 캠페인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수리권'이란 제조사의 핵심 부품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자가수리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수리받을 권리를 말한다. ESG 활동가들은 입법 활동, 주주 제안 등의 방식으로 빅테크 기업의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영리단체 '애즈유소우(As You Sow)'와 협력하여 소비자 수리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자가 수리에 대해 보수적이던 애플까지 2020년 11월 소비자들의 자가 수리를 허용하였다. 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는 시민 단체 및 소비자들의 요구, 그리고 연방 정부 규제 도입이 가져온 결과이다.

애플의 자가 수리 정책 도입은 ESG 투자자들의 요구가 오랜 시간 고수한 정책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신제품의 발전된 성능만큼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소비자 수리권의 확대는 전문수리업자 시장의 확대, 장기적으로 IT 제품의 교체주기 연장 등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에 끼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자 제품 폐기물 증가하지만 재활용 비중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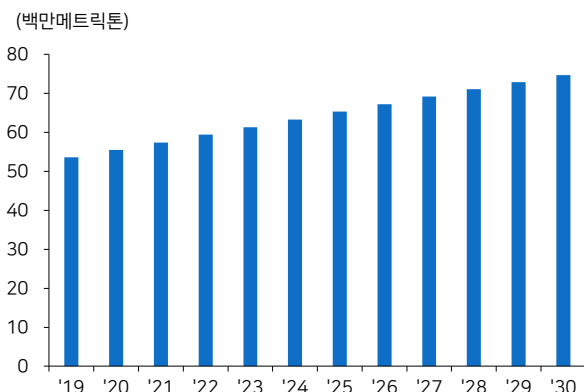
과거에는 고장 나면 새 제품을 사는 것이 일반적

2020 년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에 맞춰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소송에 대해 5 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례는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이 그간 소비자들의 재구매를 유도한 전략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사용하던 제품이 낡거나 고장나면 최신 제품을 새로 구매하여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보니 빅테크 기업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될 것을 전제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문제 의식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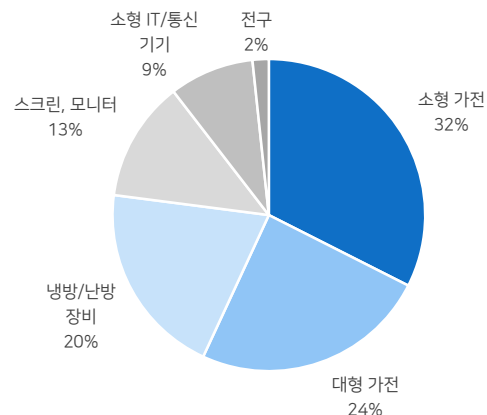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전자제품 소비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Global E-waste Statistics Partnership 에 의하면 2019 년에 53.6 백만톤의 전자제품이 폐기되었고, 이는 5 년전 대비 21%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중 폐기 후 재활용된 제품 비중은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1 글로벌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량 '30년까지 증가 전망



자료: WEEE Foru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전자제품 폐기물 카테고리 별 비중



자료: The Global E-waste Monitor (UNU/UNITA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순환 경제 트렌드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 수리권 운동

순환 경제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 수리권 운동이 주목 받고 있음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트렌드도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환 경제란 '제조-사용-폐기'의 선형 경제와 달리 폐기 이후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빅테크 기업을 향한 '소비자 수리권 운동(Right to Repair Movement)'은 순환 경제 트렌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소비자 수리권 법안 개선을 위한 노력

'소비자 수리권'이란 전자제품 제조사의 부품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소비자의 자가 수리를 허용하는 등 제품 수리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영국의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은 Big Repair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대중들의 가전제품 수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제조사, 수리업자,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영국 내 '소비자 수리권(right to repair)' 법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구형 전자제품 재사용이 더욱 용이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소비자 수리권 보장 요구에 호응

ESG 활동가들은 빅테크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 기업의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펼치기도 한다. 2021년 6월 비영리단체 '애즈유소우 (As You Sow)'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촉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10월 소비자 수리권 확대를 위해 애즈유소우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플 경영진은 2021년 11월 셀프 수리 제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객들이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별도 구매하여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미국 연방 정부도 소비자 수리권 보장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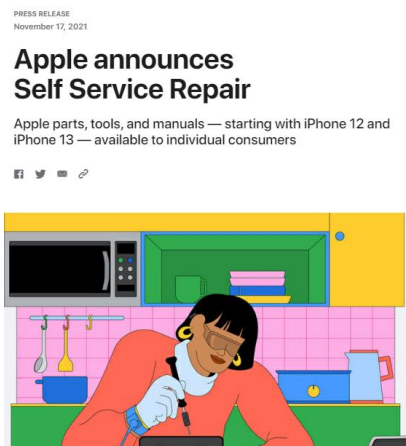
미국 빅테크 기업에 발생한 변화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 지난 7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FTC는 이에 호응하여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소비자 수리권 논의에 연방 정부가 동참하며 빅테크 기업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그림3 소비자 수리권(Right to repair)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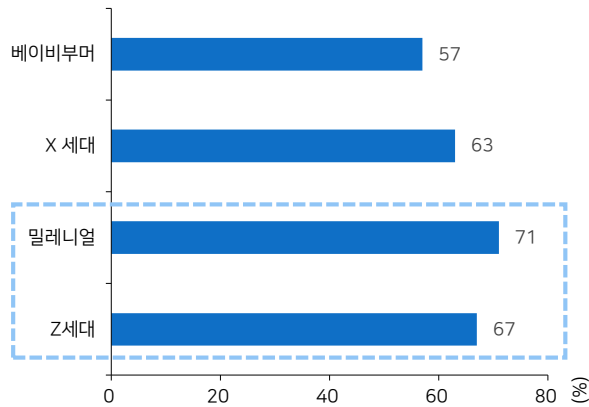
자료: Repair.e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자가 수리 제한하던 정책을 뒤집은 애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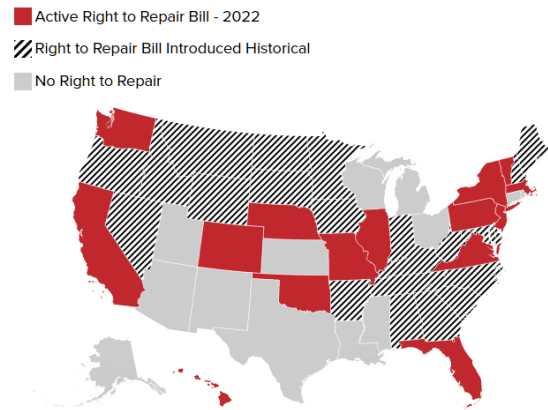
자료: App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환경 문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우선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밀레니얼, Z세대에서 높아



자료: Pew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소비자 수리권 법안이 논의됐거나 시행되고 있음



자료: repair.o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소비자 수리권이 산업에 끼칠 영향에 주목

ESG 문제에 대한 관심은  
빅테크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냄

애플은 소비자의 자가 수리를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다. 이러한 애플의 정책 변화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이 사례는 ESG 투자자들의 요구가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강조한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가 더해진다면 오랜 시간 고수해온 정책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소비자들의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 X 세대(1965~1980 년 출생)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향상된 성능, 추가된 기능 등에 열광했다. 그에 반해 현재의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그 어느 세대 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세대이다.

전문 수리업자 시장 확대 등의  
파급효과 주목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애플까지 소비자 수리권을 인정하며 소비자 수리권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 산업과 주식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소비자 수리권'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의 '소비자 수리권'의 보장 여부와 범위는 ESG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고장 난 제품을 스스로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IT 제품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IT 산업의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수리권'에 향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문: 'Right to repair' campaign forces rethink by Big Tech (Financial Times)